

## 특별기고

## 정성룡

광주시 동구 도시관리국장



오래전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하나뿐인 지구’를 통해 접한 브라질의 지방도시 ‘쿠리치바(Curitiba)’.

## 활력 넘치는 도시 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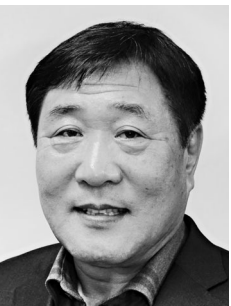
필자는 “어떻게 하면 살기 좋고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다시금 이 도시를 떠올렸다. 지금은 ‘친환경 생태도시’의 대표적인 모델로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과거 급격한 산업화와 이주민 유입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했던 도시였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변화한 쿠리치바를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라고 칭하고, 공식사회에서는 단골 벤치마킹 도시로 언급하곤 한다.

쿠리치바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71년 건축가 출신인 자이메 레르네르(Jaime Lerner)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다. 버스를 지상의 지하철로 이용하는 ‘중앙버스 차로제’ 도입과 도심지가 아닌 주거지역에서는 전체 면적의 50%에만 건물을 짓도록 하고, 나머지는 나무 식재 또는 자연 상태로 남겨두도록 했다.

## 기고

## 김근종

본지 상무이사



6·1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시장·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에 당선돼 민의를 대변한다며 취임했다. 당선자들에게 먼저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

모든 당선자가 주민의 권익을 대변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확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임기 동안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특지광장

##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지난 주말 집 근처 텃밭에서 감자를 캐다.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다른 밭에 비해 줄기와 잎이 덜 무성한 게 좀 더 이따가 썰까 망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하지도 이미 지났거나와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10평 남짓한 주말농장에 썬채소,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등 이것저것 많이 심다 보니 감자는 고작 두 고랑뿐이라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예상 외로 수확이 쏠쏠했다.

후텋지근한 날씨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호미질을 할 때마다 여기저기 얼굴을 내미는 감자를 보니 왠지 가슴이 뿌듯해졌다. 주말마다 텃밭을 찾아 물 주고 김매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에 감자 한 알 한 알마다 애똥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단순한 수확의 기쁨 그 이

## 숨 쉬는 도시, 동구만의 색을 입히자

머나먼 해외도시의 성공사례이긴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단체장과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한 결과이다. 광주 동구도 민선 7기 들어 성공적인 도시개발·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구 10만 명 회복에 이어 도시 곳곳에 활력 넘치는 변화가 일고 있다.

동구는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푸른길공원,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등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이다. 이러한 자산을 잘 활용해 동구만의 색을 입히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과 자연 그리고 도시가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은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준다. 이를 위해 도심에 녹(綠)을 입히고 친수공간을 확보하자. 무등산에서 5·18민주광장까지 녹색 연단화를 통해 무등산의 녹음을 시내까지 끌어오고, ACC에서 푸른길, 광주천으로 이어지는 녹음 수변길과 주민들의 손때가 묻은 골목 돌레길을 만들자. 자투리 공간에는 대대적인 수목을 심는다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축물을 하나의 종합예술품으로 가꾸는 정원 도시를 만들자. 아름다운 도시공간은 건축물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같은 모양의 건축물을 지양하는 상가포로의 도시정책은 참고할 만하다. 현재 동구에는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충장22,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미로센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옥상정원’, ‘하늘정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이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열섬현상 완화 등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민간건물까지 확대함은 물론 하나의 건물이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직정원 사업 역시 보다 규모 있게 추진해 도시를 하나의 큰 정원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동구 곳곳을 보행자 우선인 ‘걸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가자. 동구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해 힘쓰면서 앞으로 외국인들의 방문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학동삼거리, 동명동카페거리, 예술의 거리, 금남로4·5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및 자전거도로로 안전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람과 자연, 도시가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이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 혁신적 발상·인식 대전환

미래 세대가 꿈꾸는 행복한 도시는 오래된 건축물을 부숴 새롭게 짓거나 격자형 아스팔트 도로, 좁은 콘크리트 골목, 삭막한 도시환경이 아니다. 도시 구성원의 혁신적인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질 때 좀 더 빨리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법이다.

모든 일에는 우려와 기회가 상존한다. 우려만 한다면 현상 유지에 그치겠지만, 기회에 주목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숨 쉬는 열린 공간과 새로움이 묻어나는 건축물, 녹음이 넘쳐나는 생태도시에 걸맞은 동구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다.

## 자리에 알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약속을 청하며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의 구성원이 돼야 한다.

논어에 나오는 글귀 중 석부정부좌(席不正不坐)라는 말이 있다. 앉을 자리가 아니면 애초 앉지를 말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는 걸맞은 행동을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30여 년 전 풀뿌리로 시작된 우리의 지방자치도 이제 성년이 된 만큼 혹여 선거 기간에 후보자는 물론 이웃 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화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등 선거를 통해 흐트러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호남 유일 정당이나 다름없는 민주당 공천자들은 당내에서 컷오프와 공천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대표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혹여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출신 지역구를 행진한다는 명분을 들어 불쌍사납게 이권에 개입하거나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권력이 영원할 수 없으며 4년이라는 세월은 짧다.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지역의 지도자가 된 만큼 석부정부좌의 마음 자세로, 그리고 자리에 걸맞은 낮은 자세로 주민 간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지방자치의 존경받는 선구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 ‘주말농장’이라 쓰고 ‘치유농업’이라 읽어

상이었다. 사실 필자에게 주말농장은 소확행 중에 하나다. 마치 다채로운 색을 지닌 식물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풀멍’과도 같다. 작은 텃밭에 불과하지만 농작물을 직접 키우고 돌보는 시간 이야말로 일상에서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이렇듯 필자에게 주말농장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이자 재미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치유농업이다.

치유농업이란,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을 의미한다. 즉, 농업, 농촌 자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는 활동을 뜻한다. 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 꽃 등의 식물뿐만 아니라 가족 기르기,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다만 일반

농사와 다른 점은 농사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원예치료협회에 의하면 농업활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에 대한 ‘생명의식’, 스스로 일궈낸 결과라는 ‘소유 의식’, 돌봄을 주는 주체가 된다는 ‘자존감’ 등 심리적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요즘 같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여전히 심리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겐 더욱 그렇다.

지금부터라도 농사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보길 기대한다.

|                                 |                |                           |                         |                                      |                      |
|---------------------------------|----------------|---------------------------|-------------------------|--------------------------------------|----------------------|
| 1989년 6월 29일 창간                 |                | <b>전남매일</b>               |                         |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                      |
| 회 장 <b>朴 哲 弘</b>                |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b>金 善 男</b> |                         | 편집국장 <b>姜 聲 秀</b>                    |                      |
| jndn.com                        |                | 대표전화 062) 720-1000        |                         |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                      |
| 정치부                             | (062) 720-1060 | 문화체육부                     | (062) 720-1071          | 월간국                                  | (062) 720-1007       |
| 경제부                             | (062) 720-1067 | 사진부                       | (062) 720-1040          | 사업국                                  | (062) 720-1011, 1099 |
| 사회부                             | (062) 720-1050 | 기획탐사부                     | (062) 720-1045~46       | 광고국                                  | (062) 720-1016~17    |
| 사회2부                            | (062) 720-1043 | 편집부                       | (062) 720-1073          | 관리국                                  | (062) 720-1012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                           | 기사제보 jndn@chol.com      |                                      |                      |
|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                |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무등산 접근성 무조건 반대할 일 아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는 적절한 가, 그렇지 않은 가.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반대쪽은 국립공원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후손을 위해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하는 쪽은 무등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감격을 누구나 느껴야 한다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한다. 어린이, 노약자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논쟁은 지난 2007년 박광대 시장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스톱됐다. 이후 랜드마크 조성, 선거 공약 등의 형태로 제기됐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광주시가 무등산 접근성 향상 등 여가·관광 인프라 확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논쟁의 불을 당겼다. 강기정 시장은 “국립공원의 존재 이유는 보존과 보호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복원이 최우선 과제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빠르게 결정하고자 하며 기존 탐방로에 전기차, 수소 트램, 드

론 택시 등 친환경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는 왜 자주 거론되는가. 아름다운 무등산을 가보지 못하는 신체적 제약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시 경쟁력 제고 차원이 크게 작용하리라 본다. 케이블카 설치가 무등산국립공원 위상을 흔들 정도로 환경 훼손을 가져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데 케이블카가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오고, 그러면 숙박과 음식업, 거리에 활기가 넘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위험 요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그에 수소 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을 지켜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유산을 보존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을 모든 후손이 공유하는 방안일 것이다.

## 전기차 편의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가 종료되며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올랐다. 한 국전력은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전력 기본요금 등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당초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 했지만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가 이후 단계적 폐지 수순에 따라 지난달 말 완전 폐지됐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1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20.2원 인상됐다. 현대차 아이오닉5(배터리 77.4kwh) 기준 완충비용은 2만 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 비싸졌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도 1kwh당 5원 올리기로 예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전력 사용 부담은 더 늘게 된다. 인상된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신 공약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었다.

여기에 반도체 공급난, 원자재가, 물류비 인상 등으로 전기차 출고가격도 줄줄이 인

상될 예정이어서 구매와 유지비가 동반 상승하게 됐다. 정부가 추진하던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차량 가격, 수리비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도 전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기차를 구매했지만 갈수록 메리트가 떨어져 간다는 것이다.

전기차를 소유한 시민들은 전기요금을 올린 만큼 전기차 편의를 위한 인프라 설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가와 원재료 가격에 따라 전기료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인상된 만큼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전요금할인 특례 종료와 전기세 인상으로 전기차 구매 심리가 위축되면 친환경모빌리티 등 환경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 전기차 기술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국내에 전기차가 보편화되는 등 내수 시장이 활성화 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기차 인프라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보고 이 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 민주당 독식 지방의회 제 역할할까

## 기저수첩



## 김용현

정치부 차장

새롭게 출범하는 9대 광주시의회와 12대 전남도의회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지난 4일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은 총회를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했다. 부의장에는 심철의·이귀순 의원이 선출됐다. 의장 후보는 앞서 열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무장 의원으로 결정됐다.

운영위원장은 강수훈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임미란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은 조석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김나운 의원, 교육문화위원장은 신수경 의원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만큼 이들 후보들은 오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대 전남도의회 역시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의장 후보에는 민주당 4선 출신의 서동욱 의원과 재선인 진보당 오미하 의원이 등록했다. 1·2부의장 후보에는 3선 김태곤 의원과 재선 전경선 의원이 각각 단독 지원했다.

상임위원장 후보도 민주당 경선 결과와 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등록했다.

9대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22명, 국민의힘 1명(비례)으로 구성돼 있고, 12대 도의회는 전체 61명 중 민주당 56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거 때마다 불거진 주류·비주류 다툼, 전·후반기 편짜기 등의 ‘자리싸움’을 방지하겠다고 경선을 통해 후보를 내도록 했다. 의정활동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원 구성에서 소수정당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지만, 민주당의 독식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시·도지사와 지방의회를 한 당당이장했으니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일당독점체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건전한 비판을 하기 위한 역할을 키워야 한다.

변화와 혁신 없이 퇴행적인 행태를 반복할 경우 민심은 언젠가 저지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